

이 역 땅에 굶이친 재 중 동 포 들의 뜨 거운 경 모의 정 (2)

우리가 재중조선경제인련
합회 김승걸동포가정을 찾
은것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진
행하는 경축행사를 하루 앞
둔 2월 11일이였다.

우리가 집안에 들어서니
은 가족이 광명성절경축행사
장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상에 드릴 향
기로운 꽃바구니를 정히 꾸
미고있었다.

김승걸동포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찍은 기념
사진들이 정중히 모셔져있
는 방으로 우리를 안내하
였다.

《제가 어버이수령님을 처
음으로 만나뵈운것은 1982년
4월 수령님탄생 70돐을 맞으
며 평양에서 처음으로 시작
된 4월의 봄 친선에술축전부
대에서였습니다. 지금도 영
광의 그날을 잊을수가 없습
니다.》



뜻 잇을 그 날의 영 광을 언제 나 가슴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의
눈빛은 깊은 감회에 젖어있
었다.

20대에 재중조선인총련합
회에서 사업하던 그는 어느
날 4월의 봄 친선에술축전에
참가할 준비를 할데 대한 과
업을 받았다.

비록 예술적소질은 높지
못했지만 그는 여러 동료들
과 함께 공연연습에 달라붙
었다.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수령님의 탄생일
을 민족최대의 경사로운 명
절로 성대히 경축하는데 적
은 힘이나마 보태려는 하나
의 일념을 안고 낮이고밤
이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
였다.

이렇게 준비한 공연종목을
안고 그들은 평양으로 달
려왔다.

《그런데 글세 저희
들의 그 소박한 공연
을 김일성주석님께서
보아주시길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저
희들이 준비한 설
화와 합창을 한히
보아주시고 한하게
웃으시며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고 영
광의 기념사진까지 찍
어주시였습니다.》
이어 그는 걱정의 그날

어버이수령님앞에서 불렀던
홍모의 노래를 조용히 부르
기 시작하였다.

젊은신 김일성장군님의
동상을
력사의 땅 길림에 모시고
사는 우리

200만 재 중 동 포 축원의
마음안고
중국땅 곳곳에서 달려왔
어요

...

깊은 감동에 젖어있는 우
리에게 그의 안내 김성금
동포는 이렇게 말하는것이
였다.

《저의 남편은 원래 말이
적고 또 별치 않은 일에도
신경을 내는 그런 메마른 성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석님을 만나뵈고
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딴 사
람이 되었습니다. 마음도 넓
어지고 항상 웃고 떠들며 사
업에 얼마나 열정적이던지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수 있
을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
니다.》

절세위인의 뜨거운 사랑
과 은정속에 인생의 참된
삶을 되찾은 그는 그후 제
2차, 제3차 4월의 봄 친선에
술축전에 참가하여 또다시
어버이수령님을 뵈운는 크나
른 영광을 지니었다.
런이어 어버이수령님을 만

나뵈는 크나큰 행운을 받아
안은 그는 그 사랑, 그 은
정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남
경국립대학을 졸업한 딸 김
춘희동포와 함께 금수봉국
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나
날이 개화발전하는 공화국
의 주체미술을 중국과 유럽
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널리
선전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
붙었다.

그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태양의 모습이 못건디게 그
리를 때면 가족들과 함께
조국방문의 길에 오르곤 하
였다.

이 나날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꼭 같은



김승걸동포 (가운데)가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아래 자랑스럽
게 변모되어가는 조국의 벽
한 현실을 직접 보면서 대
를 이어 위인복을 누리며 사
는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
심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
게 되었다.

주제103(2014)년 1월 1일
첫 아침 그는 어버이수령님
과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
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
에 찾아가 삼가 인사를 드리
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아뢰
었다고 한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
어져있어도 어버이주석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늘
가슴에 새겨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
국사업에 한마음 다 바쳐가
겠습니다.)

본사기자 김화명

영구-노민행 렬차에서 만간 동포녀성들

우리 통일신보사
취재단은 영구-노
민행 렬차에서 광명
성절경축 재중조선
인총련합회 료녕지
구협회보고회에 참
가하였던 허상숙,
허명숙동포녀성들을
만났다.

성도 같고 이름
도 비슷하여 자매지
간인가 물었더니 그
렇지는 않지만 언
니, 동생하며 지내
도 감격하여 장군님께 마음
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
고 또 올리였습니다.》

그날에 받아안은 감격이
너무도 커서인지 허상숙동
포는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광명성절경축행사장으
로 향한 동포들 모두가 이
밤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
같은 그리움에 잠 못 들리라
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마
냥 후회되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밤은
깊었으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허명숙동포는 지난해 12월
조국을 방문하여 문수물놀이
장과 미림승마구락부에 가보
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이
렇게 말하였다.

《특히 문수
물놀이장에 서
마음껏 즐기는
어린이들의 행
복에 넘친 모습
을 보면서 부러
움을 금할수 없
었습니다. 하
루종일 그 애
들과 함께 웃

옆에 앉은 허상숙동포도
홍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
았다.
《전 우리 재중총련에서 진
행하는 광명성절경축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하는데 정말이
지 가슴이 막 설레입니다.
제가 조국을 처음 방문했
을 때와 같은 심정이랄가 도

무지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
습니다.

저는 1992년 4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조국을 처음으로 방
문했는데 글세 수령님을 모
시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크
나큰 영광을 받아안을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글수 없는 그 나날 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저
희들이 조국방문기간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따듯이 돌보
아주고계신다는 사실에 너무
도 감격하여 장군님께 마음
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
고 또 올리였습니다.》

그날에 받아안은 감격이
너무도 커서인지 허상숙동
포는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광명성절경축행사장으
로 향한 동포들 모두가 이
밤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
같은 그리움에 잠 못 들리라
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마
냥 후회되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밤은
깊었으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허명숙동포는 지난해 12월
조국을 방문하여 문수물놀이
장과 미림승마구락부에 가보
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이
렇게 말하였다.

《특히 문수
물놀이장에 서
마음껏 즐기는
어린이들의 행
복에 넘친 모습
을 보면서 부러
움을 금할수 없
었습니다. 하
루종일 그 애
들과 함께 웃

고 떠들며 마음껏 즐기고싶
은 심정을 여겨할수가 없었
습니다.》

허상숙동포도 그때 허명
숙동포와 함께 조국을 방문
하였다고 하면서 그렇듯 훌
륭하게 품어져 건설한 회한
한 창조물들을 통채로 인민
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이
민위천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
대روی심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
기하였다.

대 중 봉사기지들마다에서
즐기는 사람들의 밝고 명랑
한 모습에서 사회과학자거
리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
게 살아갈 조국동포들의 밝
은 래일을 보는것 같았다며
허명숙동포는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의 숭고한 이상과 념원을 현
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재
중동포들의 마음 또한 든든
합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
이 모신 해외공민련 영광과
궁지를 안고 우리 재중총련조
직을 더욱 든든히 꾸리기 위
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본사기자



허상숙, 허명숙동포 (왼쪽으로부터)

인민대 중 제 일 주의 를 구 현 한 사 회 주 의

봄을 맞은 요즘 공화국의
저리거리는 다가오는 최고
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
거로 하여 더욱 활기를 띠
고있다.

도처에 선거장들이 꾸려
지고 시간이 갈에 따라 경
축의 분위기도 고조되고있
다. 며칠전 내가 선거하게
될 선거분수에 제시된 선거
자명부를 보고있는데 옆에
서 나어린 처녀가 터치는
탄성이 들려왔다.

《아버지, 여기에 내 이
름도 있어요. 여길 보세
요.》

나도 무심결에
처녀의 손가락이
가닿는 곳을 보
았다.

《번호 594번, 이름 현혜
란, 생년월일 1997년 1월
23일》

(올해 17살인것을 보니
저 처녀에게 있어서 이번
선거는 첫 선거인게로구나.
그래서 저리도 흥분되어있
으리라.)

《그래, 너도 이제는 공
화국공민이 되었으니 응당
투표를 해야지.》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나에게 무심히 들리지 않
았다.

처음으로 선거에 참가하
는 처녀만이 아닌 이 나라
공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차
레지는 선거표!

이제 사람들은 그 선거표
를 받아안고 자기들의 손으
로 직접 인민의 대표들을
선출할것이다. 그 한장한

장의 선거표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거기에는 크나큰 시
대적무게가 실려있다.

이번 선거는 인민들의 꿈
과 이상이 하나를 현실로
꽃피우고있는 격동의 환경
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새로 나온 노래 《조국찬
가》에도 있지만 공화국은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
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
득한 전설의 나라이며 약동
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
성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선거표의 무게

실현되는 사회주의부귀영
화를 꽃피우시러 현지도
의 끊임없는 낮과 밤을 모
내고계신다.

인민들에게 종합적인 물
놀이장을 꾸려주시려고 불
꽃튀는 건설장을 낮에도 찾
으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
에도 찾고 또 찾으시었고
어느 한 기마훈련장을 찾으
시어서는 몸소 말을 달리시
며 주로의 상태까지 가능
해보시며 인민을 위한 승
마장으로 개건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런 하늘같은 인민사랑
에 떠받들려 공화국에서는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
장, 미림승마구락부, 온하
과학자거리, 옥류아동병원
과 같은 인민을 위한 창조물
이 연이어 일떠서고 전편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다.

하기에 인민들은 자기들
의 생명이요 생활인 사회주
의조국을 영원히 사랑하리
라고 심장의 격정을 터치고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 이끄시
는 공화국정권을 더욱 만석
같이 다지고 고마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누구나
드넓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선거날을 기다리고있다.

그러니 어느 누구인들
선거표를 가볍게 받아안
을수 있겠는가. 그 선거표
에는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끝없이 신뢰하며 받드는
천만공민의 심장의
무게가 담겨
져있다.

사회의 단합문제는 어느
나라나 소원하는것이다. 그
러나 지역간, 계층간, 민부
간, 세력간 대립과 다툼으
로 항시적으로 소란스러운
것이 행성이고 더우기 선거
를 전후하여 대립이 충돌
과 폭력으로 번져지고있는
것도 국제무대에서 흔히 보
는 일이다.

선거가 사회의 단합을 더
욱 추동하고 혼연일체의 아
름다운 화폭으로 펼쳐지고
있는것은 오직 공화국에서
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 풍
경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
의원선거의 날에 세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뜻과 정으로 굳게 뭉쳐 나
아가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다시금 보게 될것이다.

김준경

래일(3월 9일)은 최고인민
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평범한 군로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온갖 사
회적혜택을 베풀어주는 인
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
의 우월성에 대해 다시금 가
슴깊이 되새겨보고있다.

사회주의의 기초는 인민이
다. 오늘 공화국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
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빛
을 뿌리고있다.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인민적정성을 변함없이 고
수하고 빛내여온 사회주의,
천만공민의 절대적인 지지
와 신뢰속에 승리와 번영의
로정을 수놓아온 사회주의

3.8국제부녀절을 맞이할
때면 주제101(2012)년 3.8절
날의 광경이 눈앞에 어려와
가슴이 뭉클해지곤 한다.

그날 경애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성국
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로
력적위훈을 세운 녀성들과
그 남편들을 경축음악회에
불러주시어 3.8국제부녀절을
맞는 우리 녀성들을 축하해
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
주시었다.

사회사업을 하는
녀성들의 뒤편까지 하는
남편들의 수고까지 일일이
헤아려주시는 그이의 다심한
사랑의 축복까지 받아안고보
니 우리 녀성들이 누리는 행
복이 너무도 분에 넘쳐 온밤
잠을 이룰수 없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영광은
천덕꾸러기의 딸인 내가 받
아안기에선 너무도 가슴벅찬
것이였다. 망국의 세월 막별
이군으로 천대와 멸시속에
시달리던 나의 아버지는 해
방후 비로소 사람다운 대접
을 받으며 보람찬 삶을 누
리게 되었다. 하기에 아버지는
는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한없이 고마운 제도를 지켜
한복속 서슴없이 바치었던것
이다.

지난날 민며느리로 팔려온
나의 어머니 역시 낮고고 기
옥자도 모르는 시골녀인에
불과하였지만 나라에서는
우리 가정을 전사자가족으
로 우대하고 보조금까지 주
며 우리 네형제를 공부시켜
내세워주었다. 어머니는 우
리 자식들에게 일을 더 많
이 하여 하늘같은 나라의 은
덕에 꼭 보답해야 한다고 늘
당부하곤 하였다.

세상에 놀도 없는 전반적
무로교육제의 혜택속에 배움
의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우
며 자라나 19살에 공원생활
을 시작한 나는 후대들을 위
해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일하고 또 일하였다.

내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의 령도사적이 깃들여있는
장경소학교 교장사업을 맡
았을 때 나에게 힘을 주고
신심과 용기를 주며 걸음걸
을 손잡아 이끌어주고 내세
워준것은 절세위인들의 사랑
의 손길이었다.

학교꾸러기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 교수방법을
탐구하며 교수교양을 아이들
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하기
위한 과외활동소조운영, 장
난이 세찬 연령기의 아이들

가 공화국의 사회주의이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
로 여기에 공화국의 사회주
의의 근본특징이 있고 인민
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요
인이 있다.

무엇보다 공화국의 사회주
의는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굳건히 지켜주고 최상의 높
이에서 보장해주는 사회주의
이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
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
든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
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
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
엄과 권리를 제1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립향
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
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
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사회적시책들
에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존
엄과 가치가 최상의 높이에서
빛나고있으며 국가의 모
든활동이 인민의 권리를 존
중하고 보장해주기 위한것으
로 일관되어있다. 인민의 존
엄과 권리를 제1로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인민적립향
은 인덕정치, 선군정치를 비
롯한 정치방식들에도 어려있
고 세기를 이어가며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사회적시책들
에도 뜨겁게 깃들여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
마다 세워진 사회제도와 제정
된 법률도 각이하지만 공화국
에서는 지금 인민생활향상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동등한 정치적권리
를 가지고 존엄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한 평
범한 사람들이 나라의 정사
를 논하는 대의원으로 되고
전체 인민이 하나의 대가정
을 이루고 서로 돕고 이끌며
아름다운 생활을 꽃피워나
가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릴것
이라는것이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된 드
립없는 신념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또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
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리상
과 꿈을 전면적으로 꽃피워
주는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
마다 세워진 사회제도와 제정
된 법률도 각이하지만 공화국
에서는 지금 인민생활향상

가 모든 법률도 인민중시,
인민사랑을 근본초석으로 하
고있는 나라는 없다.

공화국의 사회주의건설의
전로정은 인민의 리익과 편
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
민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온
인민대중중심의 인민의 력사
로 빛나고있다. 인민이 바라
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하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알세우지 말아야 한
다는것이 공화국의 인민적인
정치의 일관한 요구이다. 조
국보위의 총대를 틀어쥔 인
민군대가 인민의 행복의 창
조자로 위용떨치고 일군들이
인민의 시중꾼, 인민의 복무
자로 되고있는 나라가 공화
국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
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이 구호를 높이 들고 공화
국에서는 지금 인민생활향상

을 위한 창조와 건설이 도처
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지나해에 온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
집,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
키장을 비롯하여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도처에 우후죽순
처럼 솟아난데 이어 올해에
도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건설의 불바람
이 세차게 일고있다.

인민의 모든 꿈이 실현되
여 이 땅위에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 날
은 멀지 않았다.

하기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이 땅위에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구현한 가장 우
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
워주신 절세위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으며 고마운
제도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
고 빛내여갈 애국의 마음으
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자영성

지고 토론을 하는 영광을 지
니었다.

진정 녀성들의 크지 않은
위훈도 높이 내세워주고 세
상에 빛내주는 어머니 우리
조국에야말로 참다운 녀성존
중의 나라이고 그속에서 사
는 우리 녀성들처럼 복받은
녀성들은 없다.

나는 한없이 고마운 우리
의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영
원히 운명을 맡기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보람찬 후
대교육사업에 있는 힘과 재
능을 다 바쳐나갔겠다.

장경소학교 교장, 인민교원
허정숙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호구 제72호분구선거위원회에서—

